

비평의 시대와 그 무수한 흔적들

- 90년대 문학의 매체와 그 지형도

노 태 훈*

요약

1990년대를 정치, 사회의 변화로 돌아본다면 87년 6월 항쟁과 97년 IMF 사태 사이의 10년을 90년대로 구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87년 체제 이후의 급속한 사회 현실의 변화가 97년까지 이어지다가 그 이후 급속히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학적 진단이 문학사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문학의 매체와 관련해서 검토한다면 87년 출판 자유화로부터 시작된 출판물의 호황, 그리고 97년의 IMF로 인한 위축까지를 적절한 준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염두에 두면 '87-97'의 10년은 90년대 문학 매체사를 검토할 수 있는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

90년대 문학 매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문학동네》의 창간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2000년대를 전후한 문학·출판 권력 논쟁의 결과물로 재구된 부분이 있다. 또한 메이저 출판사와 잡지, 문단의 주요 작가들로 가시화되는 90년대 문학사적 전개는 그간의 연구 성과들이 보여준 다양한 90년대의 양상을 상업성과 문단 권력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측면도 있다.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문학의 한 형식으로서의 매체가 사회 문화적 맥락과 어떻게 교우하면서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기존의 문학사가 누락해온 90년대의 여러 문학적 풍경들에 대한 회고(retrospection)이자 기록(archive)이다.

본고는 90년대의 다양한 잡지들을 토대로 90년대 문학사적 풍경을 재구성하고 그 매체적 흐름을 고찰하려고 했다. 1980년대의 문학장이 엄혹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과학적 비평의 시대였다면 1990년대는 문화예술 비평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운동이나 정치 투쟁의 저항성은 컴퓨터와 PC통신이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그 비평적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고 다양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문학을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위치시키고 그 교호를 도모하려던 시도도 있었다. 나아가 이것이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문화적 실천, 혼란스러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탐구 등으로 다채롭게 이루어졌다는 점에도 주목하고자 했다.

동시에 이러한 90년대 문학 매체의 시도들은 한계도 갖는다.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를 통한 다양한 가능성이 결국 문학의 생산이나 유통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과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끝내 문학 중심주의,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문학이 가지고 있던 경직성이나 엄숙주의 등을 타파하는 데 이러한 매체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주제어: 1990년대, 문학매체, 문예지, 《오늘예감》, 《버전업》, 《문화과학》, 《이론》, 《상상》, 《리뷰》, 《이다》

목차

1. 1990년대를 돌아본다는 것
2. 학생운동의 문화적 전개와 아마추어 글쓰기: 《오늘예감》과 《버전업》의 사례
3. 비평의 문화적 영토와 문학의 자리매김: 《리뷰》와 《이다》의 사례
4. 결론을 대신하여

베일을 찢는 감각. 얇의 불투명함을 헤치고 나아가는 감각. 아카이브는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곳, 닿을 수 없게 된 것들뿐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글줄 몇 개에 옥여넣어진 상태로 드러나 있는 곳이다. 진실의 작은 조각들이 지금 이렇게 아카이브에 좌초해 있다.¹⁾

1) 아를레트 파르주, 『아카이브 취향』, 김정아 역, 문학과학성사, 2020, 15면. 제목의 “무수한 흔적들”이라는 표현도 이 책에서 가져왔다.

1. 1990년대를 돌아본다는 것

1990년대가 가져온 전방위적인 정치·사회·문화적 변화들은 새삼스럽지만 이 시기가 1980년대와 2000년대의 사이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산주의 붕괴와 소련 해체라는 결정적인 세계사적 순간이 도달하기까지 한국의 지식인들조차 이에 대해 거의 ‘무지’했었다는 사실은 그 분열의 징조가 이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저간의 서술²⁾을 참고할 때, 당대 한국 사회가 맞닥뜨려야 했을 곤혹스러움을 짐작케 한다.

1990년대 한국문학(화)에 대한 주목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레트로’ 흐름과 관련이 깊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문학 연구의 흐름이 1980년대를 거쳐 90년대로 이동하는 흐름과 최근 문학 비평장의 여러 논쟁점의 기원이 90년대에 있다는 점이 그 동력으로 작동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중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90년대가 ‘소환’되면서 90년대 문학 역시 재발견되었던 것이다. 특히 1990년대처럼 문화적 욕망이 폭발하던 시기에 경험한 환호와 열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노스탤지어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레트로를 “대중문화와 사적 기억이 교차하는 곳에서 부화”한다고 정의한 사이먼 레이놀즈는 “과거와 연관된 여타 양식”과 레트로를 구분하면서 ‘아카이브’와 ‘브리콜라주’를 강조한다.³⁾ 과거를 이상화하거나 감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혹은 재조합을 통해 현재의 재미와 매혹을 찾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레트로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90년대에 관한 한국문학 연구의 관심 역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당대의 관점에서 90년대 문학의 의미화를 시도했던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가 담론의

2) 마이클 돕스, 『1991—공산주의 붕괴와 소련 해체의 결정적 순간들』, 허승철 역, 모던아카이브, 2020, 참조.

3) 사이먼 레이놀즈, 『레트로 마니아』, 최성민 역, 위크룸프레스, 2017, 31면.

차원에서 비평적 검토를 수행했다면,⁴⁾ 『1990년대의 증상들』과 『1990년대 문화 키워드 20』 등의 최근 연구 성과는 다양한 문화적 아카이빙의 성격이 강하다.⁵⁾ 90년대라는 시기를 80년대와의 단절 또는 연속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편향의 문제는 특히 까다롭고 최근의 연구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하나’가 아니라 ‘여럿’으로 90년대를 역사화하려 한다.⁶⁾

80년대를 ‘도덕적’ 진정성의 시대로, 90년대를 ‘윤리적’ 진정성의 시대로 구분하고 그 두 진정성의 결합이 하나의 ‘레짐’으로 존속했던 시기를 97년 체제 이전으로 상정하는 김홍중의 논의를 참고하면 살아남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던 시대에서 생존 경쟁에서의 승리가 곧 성공이 되는 시대로 90년대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⁷⁾ 진정성은 소멸되어 가고 속물적 욕망이 가시화되는, 거대 서사가 사라지고 일상의 재현만이 남는, 그리하여 문학의 ‘종언’을 말하게 되는 흐름으로 우리는 90년대를 이해하면 될까.

이 경우 90년대는 1980년대나 2000년대의 대타향으로만 의미를 갖게 된다. 80년대의 문학에 ‘있었던 것’이 90년대 문학에는 ‘없다’거나 2000년대 ‘어떤 것’의 ‘과정’이자 ‘예비’ 단계로 90년대적인 것이 언급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80년대 문학에 개인의 내면이나 일상, 욕망 등의

4)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작가와 비평 편, 여름언덕, 2005)는 90년대 문학의 키워드로 ‘포스트모더니즘’, ‘신세대’, ‘생태’, ‘세기말’, ‘속도’, ‘몸(육체)’, ‘여성’, ‘일상’, ‘고백’, ‘환상’, ‘후일담’, ‘역사’, ‘대중과 출판상업주의’, ‘논쟁’ 등을 꼽았으며,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민음사, 1999)의 좌담(황중연·진정성·김동식·이광호)에서는 ‘90년대의 정신사’, ‘80년대와의 단절’, ‘신세대 문학 논의’, ‘장정일과 신경숙’, ‘90년대 여성 문학’, ‘90년대 후반 새로운 작가들’, ‘근대성 논의의 재인식’, ‘21세기 문학’ 등이 다루어졌다.

5) 『1990년대의 증상들』(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은 90년대 영화에 관한 논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1990년대 문화 키워드 20』(문화다북스, 2017)은 ‘노래방’, ‘호출기&휴대폰’, ‘스타크래프트’, ‘딴지일보’ 등 대중적 영향력이 컸던 현상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6) 김영찬, 『90년대는 없다—하나의 시론, 1990년대를 읽는 코드』, 『1990년대의 증상들』,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2장 참조.

7)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28-46면 참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90년대 문학에서도 정치성, 총체성, 계급성 같은 것이 여전히 중요한 지점으로 남아 있었다. 80년대를 “그 자체로 나름의 자기완결성을 갖추었던 시기”로 보고 이에 반해 90년대는 “카오스의 법칙이 지배하는 지극히 문제적인 시기”여서 ‘우리’가 사라진 자리에 ‘나’의 정신만이 강조되었다는 논의는 그 기계적 단절성을 떠나 두 시기를 동시에 경험했던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실상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⁸⁾

그러므로 90년대 문학의 거개를 ‘후일담’류로 읽어내고, 당대의 정치사회적 투쟁을 80년대 운동사의 “잉여”나 “대리보충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90년대의 정치성과 새로운 저항 정신을 읽어낼 수 없다.⁹⁾ 90년대의 문학사를 1930년대와 나란히 두고 ‘근대성’ 담론으로 그 상동성을 언급했던 몇몇 시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다.¹⁰⁾ 다른 역사적 시기와의 비교나 대조를 통해 90년대의 면모가 밝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90년대는 없지만 90년대적인 것은 있고, 그것에 대한 탐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90년대를 개인의 자유와 소비의 시대로 본 주은우는 87년 체제와 97년 체제 사이의 10년을 ‘1990년대적’인 시기로 상정한다.¹¹⁾ 87년 6월 항쟁 이후의 변화가 97년 IMF 시기까지 이어지다가 급속히 냉소주의 사회로 이동했다는 것이 그의 논의인데, 이러한 사회학적 진단이 문학사에 그대로

- 8) 이해영, 「90년대와 80년대: 하나의 정신사적 고찰」, 《문화과학》, 1999년 겨울호, 119면.
 9) 장성규, 「당신들의 90년대」, 《실천문학》, 2015년 여름호, 291면.
 10) 황중연은 앞의 좌담에서 “90년대는 3,40년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르크스주의의 몰락, 회의와 반성에 처한 근대, 동아시아의 부활.”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김윤식은 “90년대 이후의 위기의식이 30년대에 투사되었을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서술한 바 있다. 황중연·진정석·김동식·이광호, 「좌담: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14면; 김윤식, 「체험으로서의 한국 근대문학사론—근대문학의 기원과 문학사의 원환 구조」, 《문학동네》, 1998년 겨울호, 139면.
 11) 주은우,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건」, 《사회와 역사》 88호, 한국사회사학회, 2010.12., 308-311면 참조.

적용될 수는 없으나 문학의 매체와는 깊은 관련이 있다. 1987년 10월 당시 문화공보부가 판권도서를 해제하고 출판 및 잡지의 신규 등록을 자유화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문학 매체는 급속도로 늘어났다.¹²⁾ ‘문자문화의 마지막 전성기’라고도 불리는 90년대의 종이 매체 시장은 그러나 1997년 IMF 사태를 계기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담론의 공간은 ‘지면’에서 ‘화면’으로 옮겨 갔다. 이 과정을 염두에 두면 ‘87-97’의 10년은 90년대 문학 매체사를 검토할 수 있는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

90년대 문학 매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문학동네》의 창간에 주목한다.¹³⁾ 《창작과비평》과 《문학과사회》 진영이 그 역사적·문학적 무게와 씨름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무렵, “어떤 새로운 문학적 이념이나 논리를 표방하지” 않고 “문학의 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선언¹⁴⁾은 90년대적인 ‘타협’과 ‘개방’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점이다. 그러나 《문학동네》로 표상되는 90년대 이후 한국문학의 매체 지형도는 다분히 2000년대를 전후한 문학·출판 권력 논쟁의 결과물로 재구된 부분이 있다.¹⁵⁾ 또한 메이저 출판사와 잡지, 문단

12) 주요 매체의 양적 증가도 폭발적이었지만 정부의 정책과 기술 발달 등이 매체의 질적 상승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에 관해서는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505-554면 참조.

13) 아래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조연정, 「문학주의의 자기동일성—1990년대 『문학동네』의 비평 담론」, 《상허학보》 53집, 2018.6.;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문학」, 《한국문화》 81집, 2018.3.;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1990년대 문학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들」, 《한국학연구》 56집, 2020.2.; 최가은, 「90년대와 '여성문학특집': 『문학동네』 1995년 여성문학특집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5권, 2021.4. 등 참조.

14)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 「계간 문학동네를 창간하며」, 《문학동네》 1994년 겨울호(창간호), 16면.

15) 2000년대 초반의 문학 권력 논쟁부터 2015년 신경숙 표절 사태로 야기된 문학 권력 논쟁까지 《문학동네》는 ‘문학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의 중심이 되어왔다. 권성우, 김명인, 이명원, 홍기돈 등이 『문학권력』(개마고원, 2001), 『주례사 비평을 넘어서』(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2)를 통해 제기했던 비판은 조영일을 비롯한 여러 소장 비평가들을 거쳐 386세대에 거리를 두고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를 경험한 젊은 세대의 현장 비평가들에게까지 이어져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문학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문학동네》 그룹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필

의 주요 작가들로 가시화되는 90년대 문학사적 전개는 그간의 연구 성과들이 보여준 다양한 90년대의 양상을 상업성과 문단 권력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측면도 있다.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문학의 한 형식으로서의 매체가 사회 문화적 맥락과 어떻게 교우하면서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기존의 문학사가 누락해온 90년대의 여러 문학적 풍경들에 대한 회고(retrospection)이자 기록.archive)이다.

2. 학생운동의 문화적 전개와 아마추어 글쓰기: 《오늘예감》과 《버전업》의 사례

1980년대 후반 양대 계간지가 복·창간되고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논의 중 하나는 노동자 계급성에 관한 것이었다. 노동문학이 노동자 자신의 투쟁과 연대로 기능하던 시기를 지나 90년대의 한국 사회는 생산직 노동자 중심에서 도시 중산층의 사무직 노동자, 즉 화이트칼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¹⁶⁾ 이럴 때, 민중의 공통 감각을 기반으로 한 대중성의 획득은 매우 중요한 목표였다. “지배이데올로기의 허위를 폭로하는 한편으로 변혁사회의 전망을 문학형식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대중적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일”이 민족·민중문학의 중요한 과제였음을 상기한다면 ”온갖 형태의 세련된 문학 경향들“, 특히 문학의 ‘허무주의’와 ‘신비화’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대중성은 무척 중요한 조건이었다.¹⁷⁾

요하겠지만 동시에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당대의 여러 흐름과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고 이 글은 그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16) 노동자 글쓰기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글쓰기”에 대한 모종의 ‘기묘한’ 열정과 그에 따른 특이한 ‘감각의 생산’의 양상은 더 고찰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장성규, 「한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밤’: 1980-90년대 노동자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3집, 2021.4., 37면.

17) 윤지관, 「전환기의 민족·민중문학과 소설」, 《실천문학》, 1990년 봄호, 369-371면.

1990년을 시작하면서 양대 문학 진영이 호명했던 혁명의 주체는 ‘청년’이었다. 1990년 봄 《창작과비평》 첫 머리에서 고은은 “민중의 시대는 과연 민중성과 청년성이 정치적인 동의어임을 맨먼저 체험할 수 있게 했다”고 쓰면서 특히 퇴폐와 감상주의, 관념론적 유희로 민중을 농락하는 “상업주의 문학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 즉 “건전한 대중문예운동”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한다.¹⁸⁾ 김주연 역시 서정윤과 이문열을 언급하면서 “비평적 조정과 심사를 제껴버리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대중성의 획득이라는 그럴싸한 명분 아래 (...) 십중팔구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쓰고 있다.¹⁹⁾

이러한 시각에서 기실 그들이 상정하는 ‘청년’은 ‘대학생’이었다. 대학생이라는 집단이 새로운 실천적 지식인 세대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 1960년 4.19 세대 이후 대학생은 사회변혁의 중심 집단으로 기능해왔고, 80년대 학생 운동가들의 노동현장 투신은 노동문제의 정치화, 기존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그러나 기성 문학인들에게 대학생 주체의 가능성이란 그들이 경직된 노동자 계급성을 벗어나 다소간의 ‘탈계급화’나 ‘자유’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²⁰⁾ 혹은 ‘민족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일환

18) 고은, 「문학이 이끄는 사회와 역사—과학성, 당파성 등의 문제로서의 제언」, 《창작과비평》, 1990년 봄호, 16-19면.

19) 김주연, 「상업 문화와 혁신 문화의 거리—90년대의 문학과 사회를 전망하며」, 《문학과사회》, 1990년 봄호, 237-238면.

20) 홍윤기는 박태순이 펴낸 80년대 대학생 소설 모음집 『소설공화국』(미래사, 1987), 김남일의 『청년일기』(풀빛, 1987) 등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한국 해방 문학의 일익을 담당하는 대학문학의 선결 과제는 모순된 토대와 분열된 인격을 유기적으로 통일하여 해방의 필연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탈계급화의 전형을 발견하는 일”이며 “선택과 결단의 여지 없이 오직 자기 변화에 의해서만 해방된 생존과 실질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노동자·농민·빈민과는 달리 비교적 유희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과 결단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학생 및 대학인에 대한 주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절실한 이야기를 추출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홍윤기, 「탈계급적인 선택과 결단의 문학적 표출—해방문학으로서의 대학문학」, 《문학과사회》, 1988년 여름호, 543면.

으로 대학생들이 혁명적 에너지를 표출하리라는 기대²¹⁾로 상반되게 나타났다.²²⁾

80년대 후반 대학생의 문예운동은 문화주의를 경계하면서 “전문성의 심화로 대중성의 강화”를 도모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²³⁾ 특히 밀려드는 엄청난 대중문화의 물결은 민주주의와 민족 해방의 노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만화, 대중음악, 패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는 급속도로 시작되었고, 문화비평 혹은 문화연구의 이름으로 미시적 문화 현상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으며, 문화운동과 문화정치는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2년 창간된 《문화과학》이 지속해오던 논의,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현실문화연구, 1992)와 『문화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현실문화연구, 1993)을 필두로 한 〈문화연구〉 및 〈문화교양〉 시리즈, ‘토마토’에서 출간된 〈90년대 젊은비평가〉 시리즈²⁵⁾ 등은 그러한 주요 결과물들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은 잡지 《오늘예감》의 창간

- 21) 《창작과비평》은 1988년 가을호 머리말에서 “금년 8·15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재차 계획한 남북학생회담 날짜로서 지금 한창 논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남북학생회담추진투쟁’에 대한 주목을 드러낸다. 또한 위장 취업한 대학생(학출)과 노동자의 연대 투쟁을 소재로 한 공지영의 데뷔작 「동트는 새벽」이 실렸다는 점은 이들이 기대한 대학생 집단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편집인, 「88년의 8·15를 넘기고」, 《창작과비평》, 1988년 가을호, 2면.
-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 5월 투쟁에 대해 창비와 문사 진영 모두 머리말에서 언급조차 않는 양상은 이들 기성세대의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면이 있다.
- 23) 김동해, 「학생운동 내의 문학예술투쟁에 대한 제언」, 《녹두꽃》 1호, 1988, 197면. 이 지면에는 전남대학교 “용봉문학회”의 활동 사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이 역시 “문학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에 복무한다”는 원칙이 강하게 드러난다. 용봉문학회, 「조직활동의 문예적 전망」, 같은 책, 414-423면 참조.
- 24) 김창남, 「민주화 대세 거스르는 대중문화」, 《選批》, 1988년 봄호(창간호), 116-121면.
- 25) 서지는 아래와 같다. ①손동수, 『금기와 욕망 사이에서 떠돌아대기』(토마토, 1996) ②변정수, 『상식으로 상식에 도전하기』(토마토, 1996) ③김종화, 『해체: 통일에서 포르노까지』(토마토, 1997) ④노영화, 『키취소년, 문화의 바다에 빠지다』(토마토, 1997)

이다. 본래 ‘전국학생문예단’의 소식지였던 《학생문예》를 “저항적 대학 문화의 복권을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다”는 취지로 제호를 《오늘예감》으로 바꾸고 계간지로서의 변신까지 시도했으나 통권 9호로 중단된 이 잡지는 그 자체로 대학 문예 운동의 명멸을 보여주거니와 80년대의 운동성의 모순을 자각하면서 동시에 90년대의 문화적 현상들에 대해 저항과 경계의 태도를 보여주었던 당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면이다.²⁶⁾

『학생문예』는 가능한 범위에서의 학원 내 문예활동의 전국적 유통을 책임이하고자 애썼으며 좌파 문예대오의 조직적 결집의 정책적, 이론적 매개로서 작용하고자 했다. 대선을 앞두고 혹은 지나면서 이러한 의도는 전적으로 타당했으며 실제로 전국의 많은 단위를 실천과 논의의 장으로 인입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적인 성과였다. 전적으로 ‘전국학생문예단’의 조직적 합의와 성과물에 기대었던 『학생문예』는 그 집중력을(을-필자 주) 대중적으로 확장시킬 매개를 제대로 설정하고 있지 못했다. 이미 학내의 문화지형이 문예동아리의 예술활동을 중심으로 형성했던 대학문화라는 특수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었으며 기존의 뚜렷했던 전선도 그 형태를 존속시키지 못하고 있었다.²⁷⁾

민주주의는 ‘문민정부’라는 표피를 쓰고 있으며 독점자본주의가 안착되어 가는 남한 사회로 당대를 인식하고 이에 “학원 내 문예활동의 전국적 유통”을 통해 저항하려 했던 「학생문예」의 시도는 그 대중적 확장을 고민하고 있었다. 《오늘예감》으로 개편하면서 편집진은 개방과 확대의 기치를 내건다. “대학내 문화적 담론투쟁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고답적이고 도식적인

26) 「전국대학문예소식지 『오늘예감』 발간 “대학문화는 일상적 이데올로기戰”, 《대학신문》, 1993.11.15.; 「계간지로 재창간하는 『오늘예감』 편집장 손동수군 ‘대중문화에 매몰된 일상의 변혁’, 《대학신문》, 1994.10.10.

27) 편집위원 일동, 「발간취지문」, 《오늘예감》 통권 4호, 1993.10., 2면.

글쓰기"가 아니라 "대중적이며 정열적인 글쓰기"를 도모하고자 했던 기획²⁸⁾은 그러나 '문화죽이기'라는 모토 아래 도서출판 '오늘예감'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재창간하면서 역설적으로 대학문화로부터 멀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신세대, 신인류가 되어 있"고 "새로운 감성으로 무장한 개성적 소비자"로 호명되기 시작했다는 사실²⁹⁾은 학생운동과 대학문화의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동시에 소위 화이트칼라 노동자 계급의 성장과 자본주의 사회로의 급속한 이동 속에서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일이 지배계급과 정치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늘예감》으로 이름을 바꾼 뒤 대학문화가 여전히 중심이되 대중문화의 여러 영역으로 시선을 확장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³⁰⁾

서력(西曆)과 함께 "광주민중항쟁" 했수로 발간년도를 표기하고, 편집장 손동수를 비롯해 대중문화비평팀, 대학문화연구팀과 지면을 꾸리던 《오늘예감》은 계간지로 바뀌면서 전복적인 대중문화잡지로 완전히 탈바꿈한다. 특히 <대학문화>에 대한 코너가 1995년 9월 통권 4호를 기점으로 사라지고 한정수 편집장 체제가 되면서 《오늘예감》은 PC통신을 기반으로 한 전위적 문화 잡지가 된다.³¹⁾ 이들이 초창기 하이텔이나 나우누리 등 대기업 기반의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소규모 사설 BBS를 통해 그 공동체 의식을 키워갔다는 점³²⁾은 여전히 저항적 문화 운동이라는 가치

28) 위의 책, 3면.

29) 「오늘예감」 중앙편집위, 「우리 또한 새로운 것이 위험한 것임을 안다」, 위의 책, 6면.

30) 통권 4호이지만 《오늘예감》이라는 이름의 창간호인 93년 10월호의 모토는 여전히 '대학문화, 그 새로운 저항을 위하여'였으며, 목차에는 <미메시스가 대학에 보내는 편지>, <기획: 대학문화지형을 분석한다>, <서대노협과 함께 부르는 새로운 노래>, <학교를 떠나기 전에>, <제언: 학생회선거, 문화적 접근을 제언한다> 등 대학 내 이슈들이 대부분이었다.

31) 본래 《학생문예》로부터 통권 번호를 이어오다가 계간 《오늘예감》으로 통권 번호를 다시 매기게 된 것은 이 잡지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32) 광범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초창기에 이들이 "잉여와 소모의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를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급속하게 확산되던 PC통신 문화 속에서 《오늘예감》은 문화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전략을 택한다.

도서출판오늘예감
한푼의 세금도 지불하지 않는 배국적 기업 오늘예감도 **앞사가는내용, 도아하는 오늘예감.**

세상이 마음에 안들어 2-3일씩 잠 못자는 분들의 소원은?
속이 한번 시원하여졌으면? 욕 한번 실컷 해보았으면?

여기에 문화죽이기 오늘예감이 있습니다.
오늘예감은 약이 아니라 약에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세번 일주일만 읽으면 죽습니다.
우선 통 생각이 틀려집니다.
속이 시원하여 졌다면,
정기구독을 신청하여 장복하십시오.

오늘예감의 신비한 효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도 인정할
화제의 그 잡지!

勿驚
가격 7,000원

오늘예감 편집위원 모집 공고

1997년도 民族之敵汚訥豫感 편집위원 초빙
 민족을 적대하고 정욕, 사욕을 선전할 자들로 하여 물리키 위하여는
국악고유를 위장시켜 활동하려는 자를 손 꼭 쥐십시오.

1. 본지의 목적 민족의 적대하고 정욕, 사욕을 선전할 자들을 물리키 위하여는 국악고유를 위장시켜 활동하려는 자를 손 꼭 쥐십시오.	2. 본지의 취지 민족의 적대하고 정욕, 사욕을 선전할 자들을 물리키 위하여는 국악고유를 위장시켜 활동하려는 자를 손 꼭 쥐십시오.	3. 본지의 편집 민족의 적대하고 정욕, 사욕을 선전할 자들을 물리키 위하여는 국악고유를 위장시켜 활동하려는 자를 손 꼭 쥐십시오.
4. 본지의 운영 민족의 적대하고 정욕, 사욕을 선전할 자들을 물리키 위하여는 국악고유를 위장시켜 활동하려는 자를 손 꼭 쥐십시오.	5. 본지의 후원 민족의 적대하고 정욕, 사욕을 선전할 자들을 물리키 위하여는 국악고유를 위장시켜 활동하려는 자를 손 꼭 쥐십시오.	6. 본지의 후원 민족의 적대하고 정욕, 사욕을 선전할 자들을 물리키 위하여는 국악고유를 위장시켜 활동하려는 자를 손 꼭 쥐십시오.

民族之敵汚訥豫感

잘 안나간다 하여 판매를 기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 02-322-710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

〈《오늘예감》 1996년 겨울호(통권 8호) 광고면〉

문화의 시대에 문화를 죽이겠다는 문화 잡지는 불가피하게 문화의 질적 가치를 상징하게 되고 저급한 문화에 대한 비판을 그 방향으로 두게 된다. 90년대의 많은 잡지가 그러했듯 《오늘예감》 역시 엘리트주의라는 혐의를 받는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창간호가 문화를 죽일 수 있을 만큼 살벌했는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든지 “곳곳에 눈에 띄는 구호가 ‘대중속으로’인 듯 한데, 『오늘예감』 스스로는 전혀 그

점은 이른바 ‘동호회’ 문화의 시작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에 관해서는 안용희, 「X세대의 상상력과 ‘리얼리티’의 갱신», 《한국문학연구》 61집, 2019.12., 67-70면.

구호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점”, “현학적인 개념어 남발과 번역체 냄새가 나는 문체들이 거슬린다” 등 당대 독자가 보인 반응에서도 그러한 흔적은 꽤 발견되며,³³⁾ 결국 동시대 여러 문화 잡지와 비슷한 형태로 체제가 귀결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오늘예감》의 지향 중 PC통신과 사이버스페이스, 기성 문화에 대한 저항 등은 《버전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는 전술했듯 대학문화와 조직(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잔존하던 구성원들의 성향과 관련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문화 전반에 걸쳐 “집요하고 광범위한 관심과 정보를 추적 또는 확보한 새로운 세대의 전면적인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 소득과 학력에 의한 결속 등”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³⁴⁾ ‘통신’ 수단을 통해 취향과 관심을 공유하면서 관계망을 맺어나가는 양상은 90년대 문학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잡지 《버전업》이다.

‘사이버문학 평론 ver1.0’이라는 수식을 달고 『사이버문학의 도전: 문학의 위기와 패러다임』(토마토, 1996)을 펴낸 이용욱을 편집장으로 김영하, 변정수, 신주영, 전사섭, 한정수 등이 참여해 창간한 잡지가 《버전업》이다. 하이텔 문학관을 기반으로 PC통신 용어를 사용해 지면을 꾸린 이 잡지는 사실상 당대의 한국문학 장에서 가장 전방위적인 형태를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이용욱은 창간사에서 현재 문학의 위기는 전통적인 형식의 문학이 맞닥뜨린 것이며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사이버 문학은 “폐쇄적인 문단 구조의 해체를 겨냥”함을 분명히 한다.³⁵⁾ 이들은 작가가 된다는 것은 제도권의 인정이 아니라 독자와의 쌍방향 소통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33) 「독자의견: 소통을 위하여」, 《오늘예감》 제2호(통권9호), 1994.2., 9-10면.

34) 실제로 통신 문화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경제적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이러한 양상 자체는 계급적 배경이 가져다주는 노선의 차이, 인식적 한계에 무척 예민했던 운동권 세대에게 무척 매력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다. 정윤수, 「1990년대 피씨통신과 취향공동체의 형성」, 《사회와 역사》 제127집, 2020.9., 258면.

35) 이용욱,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버전업》, 1996년 가을호(창간호), 11면.

는 점, ‘컴퓨터 시대의 글쓰기’가 익명성, 실시간 교류, 언어의 확장 등 여러 차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여러 꼭지를 통해 증명하려 했다. 시, 소설, 에세이, 비평 등 전통적인 문학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코너가 많았는데, 이를테면 PC통신상의 익명성을 이용해 작가의 정체를 뒤늦게 공개하는 〈작가 X〉, 이용자들의 이어쓰기로 완성되는 〈릴레이 소설〉 등이 그것이다. 특히 〈릴레이 소설〉은 아주 자유로운 형식부터 ‘마스터’가 주요 개념과 설정을 제시하는 형태까지 다양했는데,³⁶⁾ 현재 장르적 글쓰기의 기반이라고 봐도 좋겠다.

65	장미송이	김선미	09/07	89	7	[릴레이] '제돌이' (4)
64	demonize	오세나	09/07	96	9	[릴레이] '제돌이' (3)
63	from연인	류경민	09/06	106	7	[릴레이] '제돌이' (2)
62	maker13	윤정원	08/30	212	6	[릴레이] '제돌이' (1)
60	호소선	홍정호	08/26	94	3	[릴레이] 박소연에서 정근 열 (10)
59	파티류	송두홍	08/10	80	89	[릴레이] 北의 向來: 1
56	girocall	이경숙	05/28	83	2	[릴레이] 아스달북, 겨울, 온유
55	bjhg	백지연	03/07	92	11	[릴레이] 아스달북, 겨울, 온유
52	bjhg	백지연	01/19	158	5	[릴레이] 아스달북, 겨울, 온유
48	myidcap	황성구	12/06	237	6	[릴레이] Tear Eyes #04
47	myidcap	황성구	11/30	171	3	[릴레이] Tear Eyes #03
46	myidcap	황성구	11/30	190	3	[릴레이] Tear Eyes #02
45	cazanne	김영선	11/15	384	26	[릴레이] Tear Eyes #01
44	cazanne	김영선	11/15	224	4	[소개] 환상소설 Tear Eyes
43	이기은	손경택	10/27	177	5	[릴레이] 한 시간의 연상 (8)
42	jazzsool	김 민	10/19	137	5	[릴레이] 한 시간의 연상 (7)
40	major1	김영은	09/10	160	7	[릴레이] 한 시간의 연상 (6)
37	copyan95	이영민	08/31	142	6	[릴레이] 한 시간의 연상 (5)
36	cybrid	백원빈	08/23	166	2	[릴레이] 한 시간의 연상 (4)
35	from연인	류경민	08/19	170	8	[릴레이] 한 시간의 연상 (3)
34	솔문영호	전준영	08/11	203	7	[릴레이] 한 시간의 연상 (2)
33	재홍	김우용	08/08	444	10	[릴레이] 한 시간의 연상 (1)
32	nownovel	소설누리	08/01	208	2	[광고] 서는 모두 저임습니다
11	스택저택	최경모	04/30	495	3	[릴레이] 박소연에서 정근열 - 온도권
9	엘라이트	권아경	04/25	416	3	[릴레이] 박소연에서 정근열
8	greenbow	조광석	04/24	312	3	[릴레이] 박소연에서 정근열
7	nobel	백원빈	04/24	352	6	[릴레이] 박소연에서 정근열
6	greenbow	조광석	04/21	344	2	[릴레이] 박소연에서 정근열
5	유리관학	우준홍	04/21	397	3	[릴레이] 박소연에서 정근열
4	삼영잡서	손재원	04/17	484	3	[릴레이] 박소연에서 정근열
3	1455019	고근형	04/15	617	2	[릴레이] 박소연에서 정근열
2	장미송이	김선미	04/11	809	2	[릴레이] 박소연에서 정근열
1	nownovel	소설누리	03/13	345	2	[광고] 황지연의 용도

〈릴레이 소설 기록(《버전업》, 1998년 봄호)〉

36) 《버전업》 지면에서는 이를 ‘방임적 릴레이 형식’과 ‘구속적 릴레이 형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판타지 소설의 경우 마치 게임의 규칙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흥미로운 TRPG(Tabletop(or Table-talk) Role Playing Game)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버전업》, 1998년 봄

《버전업》의 이러한 시도는 기성 문단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잡지에서는 꾸준히 기성 문단의 관행이나 작품성, 문학상 비판 등이 이루어졌고 소위 아마추어 작가들의 글이 많이 실렸다. 프로필에는 생년과 출신지, 출신학교가 빠지고 오로지 이름과 ID만 표기되었다. 통신 공간의 채팅이나 게시글 등을 지면으로 옮기는 시도, 형식적 실험을 동반한 다양한 텍스트들도 이루어졌다.³⁷⁾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오히려 그 명확한 지향성 때문에 시대적 흐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PC통신 문학의 가능성과 그 새로움에 대해 기성 문단이 일방적으로 배척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우선 그렇다. 실제 《버전업》은 박덕규, 권성우 등의 기성 평론가들이 ‘자문’을 하고 있었고, 이른바 컴퓨터 글쓰기, 사이버문학 등에 대해 도정일, 정과리, 김병익, 김성곤, 복거일 등 기성 문단의 필자들이 나름의 견해를 표출하고 있었다. 다소 비판적인 시선과 부정적 우려가 섞이긴 했지만 컴퓨터 시대의 글쓰기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이는 《버전업》의 지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 97년을 전후하여 PC통신은 인터넷 체제로 급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있다. 소규모 취향 공동체를 영위하던 공간이 더욱 대중적으로 확장되고, 작가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갖기 시작했다. 이럴 때 ‘계간 사이버문학’이라는 이름의 종이 지면은 사실상 더 이상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버전업》의 주간 이용옥은 마지막 잡지에서 “아직 국내에서는 정보

호, 67-87면.

37) 《버전업》의 창간호에 차학경의 『덕테』가 번역, 연재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번역자인 김경년은 미국 버클리에서 『덕테』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차학경의 오빠인 차학성 씨를 만나게 되어 번역 허락을 받았으며 그 인연으로 토마토 출판사와 《버전업》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편집위원 중 전사섭이 원고 윤문 작업을 맡았으며 토마토 출판사에서 1997년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이후 출판사가 사라져 다시 차학성 씨의 소개로 어문각을 통해 2003년 제2판(개정판)을 낸 것이 마지막 기억이라고 전해왔다. 번역자 김경년은 아직 버클리에 거주 중이며, 최근 이에 관한 인터뷰가 실린 바 있다. 김경년·최리의, 「책이라는 예술작품, 『덕테』: 차학경 『덕테』 김경년 번역가 서면 인터뷰」, 《자음과모음》, 2021년 가을호, 62-81면 참조.

화사회라는 변화한 사회 패러다임 안에서 문학이 어떻게 자기 갱신력을 획득하여 시대와 조응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태”라고 쓰고 있다.³⁸⁾ 3년여간 통권 11호의 사이버문학 잡지를 간행했지만 여전히 ‘사이버문학’은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이 언급은 견고한 한국문학의 체제를 보여줌과 동시에 웹소설의 시대가 열린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이버문학이 사실 ‘문학’에 더욱 방점을 찍은, 즉 기성 문단에 편입하고자 하는 지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이 이 시도들을 실패로 귀결되게 한 하나의 원인이었음을 짐작케 한다.³⁹⁾

북거일이 자신의 소설 『파란 달 아래』(문학과지성사, 1992)를 하이텔문학관에서 연재하면서 PC통신 문학은 큰 화제를 모았고,⁴⁰⁾ 여러 앤솔로지들을 출간하면서 그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⁴¹⁾ 특히 송경아의 『성교가 두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중 사례연구 부분인용』(여성사, 1994)과 듀나의 『나비전쟁』(오늘예감, 1997)은 사이버문학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흔히 포스트모더니즘적 주체가 해체적으로 여겨지지만 “사회적 역동성이 더이상 근대성에 고유한 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역동성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마페졸리의 논의를 참조하게 한다.⁴²⁾ 다시 말해 개인주의로의 전환이나 과거의 공동체로 회귀하지 않는 오늘날의 사회적 집단에 대해 그는 ‘부족’이라는 개념을 동원하는데, 초창기 통신 기반의 소모임과 마니아

38) 이용욱, 「로그 아웃: 정보화 사회, 국어국문학의 방향」, 《버전업》, 1999년 여름호, 423면.
 39) 예컨대 여국현은 “이용욱은 사이버문학론이라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면서 혁신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듯하면서도 여전히 인쇄활자 시대의 ‘문학’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국현, 「사이버문학’과 사이버시대의 텍스트 짜기—‘사이버문학의 도전’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11호, 1997.4., 207면.
 40) 「컴퓨터소설 큰 인기—북거일씨 「파란 달 아래」, 《한국일보》, 1992.7.2.
 41) 이영수·김종준·송세현·김창규, 『사이버핑크』, 명경, 1994; 하이텔문학관 엮음, 『비트시대—한국PC통신 하이텔 이용자문학 우수 소설집』, 토마토, 1996; 하이텔문학관 엮음, 『주목받는 여성 신예작가 신작9인선』, 청아출판사, 1996; 김영하 외, 『창작도발』, 오늘예감, 1997.
 42) 미셸 마페졸리, 『부족의 시대』, 박정호·신지은 역, 문학동네, 2017, 37면.

들의 출현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고, 《오늘에감》과 《버전업》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⁴³⁾

3. 비평의 문화적 영토와 문학의 자리매김: 《리뷰》와 《이다》의 사례

새로운 매체를 필두로 문학의 지형도를 그려보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문학의 담론적 위치를 수평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그것은 ‘비평’에 대한 관심과 주목으로 나타났는데 가히 비평의 시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9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화 현상이 비평의 대상이 되었고, 문학은 그 여러 구획 중의 하나가 되었다.

《비평의 시대》는 권성우, 박철화, 이광호가 주축이 되어 1991년 문학과지성사를 통해 창간한 일종의 비평 무크지였다. 1993년에 2호가 겨우 나오고 사라졌지만 말과 글의 가능성, 특히 “장르와 글의 성격을 뛰어넘어 모든 글쓰기가 지향해야 할 비판적 사유의 움직임”을 도모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자 언어로 행하는 비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특징이 있다.⁴⁴⁾ 《오늘의 문예비평》(1991년 창간)과 《황해문화》(1993년 창간) 역시 지역지로서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비평 중심의 잡지라는 점에서 함께 언급될 수 있으며 지금도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는 점은 비평사의 중요한 자산이다.⁴⁵⁾

43) 특히 이것은 부르디외의 ‘구별짓기’와 비교될 수 있다. 어떤 문화적 현상과 취향이 그 계급적 배경과 밀접함을 보여주는 사회학적 관점은 ‘근대’의 논리라고 마페졸리는 비판한다. 위의 책, 51면.

44) 편집 동인 일동, 『「비평의 시대」를 창간하며』, 《비평의 시대1—문학을 향하여, 문학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1991, 14면.

45) 조세희가 편집인을 맡은 《당대비평》도 1997년 가을에 창간되었는데, 다소 평범한 문학 잡지의 체제였지만 당대의 비평적 관심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문화과학》의 창간은 문화와 과학을 연결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지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문화가 전에 없이 중요한 계급투쟁의 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들은 “과학적 문화이론을 구성하는 일”, “문화적 실천을 위한 전략 마련”, “문화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 등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⁴⁶⁾ 소위 ‘과학적 문화론의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문예 중심의 문화적 사고를 극복하고 문화론의 총체적 전망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편집장인 강내희의 글을 보면 “문화론이 과학적”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유물론적 문화론”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당대 여러 매체들에서 행해지던 문화론적 스케치나 리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분히 알튀세르의 방법론에 기대 그의 논의는 ‘문화효과’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어떤 문화현상을 분석하는 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생산 매커니즘을 밝혀내고 이를 ‘지식효과’로 전유하는 과학을 가리키는데,⁴⁷⁾ 그 방법론이 모호한 유물론적 관점에 기대고 있다는 당대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과학》은 90년대 문화적 현상들을 소비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문화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한국형 문화론 형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점,⁴⁹⁾ 불가피한 이론중심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나름의 시도를 했다는 점⁵⁰⁾ 등은 《문화과학》이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문화 연구 매체

46) 편집위원, 「『문화과학』을 창간하며», 《문화과학》, 창간호, 1992.6., 2-7면 참조.

47) 강내희, 「유물론적 문화론 정초를 위하여」, 위의 책, 70-90면 참조.

48) 김성기, 「상행의 도전과 문화의 응전—최근 잡지의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문학과사회》, 1993년 가을호, 1035-1038면.

49) 이윤중, 「『문화/과학』과 1990년대 한국의 문화론」, 《구보학보》 19집, 2018.12., 512-520면 참조.

50) 이성욱은 창간호에서 “대중문화 분석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 비판에만 한정되던 공간의 촘스러움을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성욱, 「90년대 문화운동의 방향 모색」, 《문화과학》 창간호, 1992.6., 172면. 이후 이성욱의 역할과 활동은 《문화과학》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데 이에 관해서는 나준성, 「이성욱 비평의 문화(운동)론과 ‘현실’이라는 조

로 남아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문화과학》과 동시기에 창간된 《이론》은 상당한 집합점을 갖는다. 《이론》은 1992년 여름호를 시작으로 계간지 형태로 창간해 1997년 봄까지 총 16호를 낸 잡지이다. 정운영을 편집위원장으로 앞서 강내희를 포함해 총 18명의 동인이 참여한 이 잡지는 당대 한국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이 거의 집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처에 유명이 출몰하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선언적 수사를 통해 이들은 맑스주의 이론이 여전히 유효함을, 또 이를 통해 실천적 비평이 가능함을 보여주려 했다. 이들의 창립선언문에는 우리나라의 진보세력이 당면한 위기를 냉정히 인정해야 하며 그것이 곧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이론과 실천에 간직된 위대한 전통의 청산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계승의 조건이 된다”는 언급이 있다.⁵¹⁾ 다시 말해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마르크스주의를 현재적 의미로 재사유하겠다는 선언인데, 문제는 그것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⁵²⁾

우선은 민중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90년대에 급속도로 변화했다는 점, 그리하여 기존의 계급 투쟁과 노동 해방의 이론적 투쟁이 큰 호응을 얻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론적 담론이 구체적인 노동자 문화(학)와 결부되지 못했다는 점이 실패의 큰 원인일 것이다. 노동자 글쓰기의 경우로 한정한다면, ‘노동자문화회’가 90년을 전후해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는 점, 제도권 문학의 ‘노동소설’ 범주 역시 90년을 지나 2010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상기한다면 《이론》 진영의 아카데미 투쟁은 당대 민중과 상당히 유리된 채로 이루어졌다고

건의 의미], 《춘원연구학보》 제20호, 2021.4. 참조.

51) 정운영 외 17인, 「이론동인」 창립 선언문, 《이론》, 1992년 여름 창간호, 7면.

52) “이론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문화연구의 역사가 이론을 설명해 준다거나 이론의 정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언급은 초창기 한국의 문화 연구의 전개에 있어 참조할 만한 언급이다. 스텐트 홀, 『문화연구 1983—이론의 역사에 관한 8개의 강의』, 김용규 역, 현실문화연구, 2021, 21면.

봐야 할 것이다.⁵³⁾

《이론》과 《문화과학》이 ‘전문 이론지’의 성격을 갖고 진보 진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이론적 실천에 집중했다면, 90년대 비평적 흐름에서 그 구체적 사례로 빼놓을 수 없는 매체가 《상상》, 《리뷰》이다. 1993년 가을에 창간된 《상상》은 주인석이 편집장을, 임재철, 서영채, 강현, 김종엽이 편집위원을 맡았다. 편집위원의 구성에서부터 영화, 문학, 음악, 이론 등 각 분야에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방향성이 엿보인다. 창간호의 표지는 사진작가 김중만이 찍은 여섯 명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설과 영화가 만나는 한 풍경」이라는 제목의 좌담에 참여한 임철우, 박광수, 안성기, 안소영, 문성근, 이창동 등이다. 이들은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에 원작자, 시나리오 작가, 감독, 배우 등으로 참여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애마부인〉으로 이름을 알린 안소영 배우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새로운 시대란, 한국 사회에서, 해묵은 금기의 해체를 의미한다. 냉전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피해망상을 강요해왔던 거대한 정치적 금기는 사라져가고, 잘 보이지 않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있는 금기들이 닥쳐오고 있다. 이런 양상을 두고 모던으로부터 포스트모던으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걸까.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특수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⁵⁴⁾

53) 이에 관해서는 천정환,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 주체와 노동과정에 대한 서사론」, 《반교어문연구》 제46집, 2017.8.;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2)―노동자의 이름으로」에 나타난 열사, 진정성 그리고 1990년대, 《반교어문연구》 제56집, 2020.12.; 김영희, 「90년대 문학의 밤과 프롤레타리아의 시—일상/투쟁의 서사와 훼손된 육체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7권 3호, 2019.12.; 장성규, 「한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밤’: 1980-90년대 노동자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3, 2021.4. 등 참조.

54) 주인석, 「창간에 부처: 상상, 넘나들며 감싸안는 힘」, 《상상》, 1993년 가을호(창간호), 8면.

창간사에서 편집장인 주인석은 《상상》이 “신세대 잡지”임을 천명한다. 태어난 세대가 아니라 이 혼돈의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려 하는 세대”로 신세대를 정의하고, 이들이 “문자에 대한 편집증에서 자유로우며, 이미지나 소리와 같은 다른 감각과 사유의 통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⁵⁵⁾ 즉 문학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금시기되었던 어떤 문화의 영역을 ‘상상’의 힘으로 가시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문학의 위기론이 팽배하고 대중문화가 엄청난 매혹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구획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나들며 감싸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상상》의 포부인데, 이는 제대로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 《상상》의 지향이 바뀌게 된 것은 발행인(출판사)에 의한 편집위원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겠지만,⁵⁶⁾ 이를테면 동아시아 담론 등 동양적 미학론에 대한 관심이 ‘계몽적’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편집위원인 김탁환은 당시 〈현실문화연구〉 편집장 손동수, 계간 《오늘예감》 편집장이었던 한정수와 함께 〈대중문화잡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이름의 특별좌담에서 “「상상」의 편집자로서 김탁환씨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근대를 향한 물음”이라 답한다.⁵⁷⁾ 또 “기본적으로 저는 잡지가 계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따라서 잡지가 변했다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계몽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달라졌다”고 언급한다.⁵⁸⁾ 즉 새로운 문화 담론의 형성이라는 기치는 계몽성이라는 방향을 버리지 못한 채 기존의 담론 구

55) 위의 책, 9-13면.

56) 편집장이었던 주인석을 비롯해 《상상》의 편집위원 5명은 2호까지 잡지를 만들고 발행인과 의 갈등 끝에 ‘쫓겨나게’ 되는데, 이인화의 합류 여부가 그 이유였던 듯하다. 이에 관해서는 서영채의 회고가 자세하다. 서영채, 「1990년대, 시민의 문학: 『문학동네』 100호에 즈음하여」, 《문학동네》, 2019년 가을호, 482-490면 참조.

57) 김탁환·손동수·한정수, 「특별좌담: 대중문화잡지, 무엇을 할 것인가?」, 《상상》, 1996년 가을호, 312면.

58) 위의 책, 304면.

조를 매체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⁵⁹⁾ 《상상》이 “문화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론적 단절이나 실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문화연구의 비판적 담론을 반비판하는 문화적 신보수주의와 상업적인 대중문화의 옹호자로 자처”한다는 지적은 이 잡지가 결국 2000년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⁰⁾

앞서 언급한 《상상》의 창간사가 중요한 이유는 《리뷰》와 《이매진》을 거쳐 《문학동네》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그것이 90년대 한 비평적 지향의 선언이었기 때문이다.⁶¹⁾ 이 지향은 자연스럽게 1994년 겨울 창간된 《리뷰》로 이어진다. 《상상》을 창간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리뷰》에 합류했고, 여기에 권성우, 정윤석, 정준영 등의 필자가 합류해 총 8명의 편집위원이 이 잡지를 꾸리게 되었다. 창간사에서 주인석은 왜 잡지의 이름을 ‘리뷰’로 정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특히 이들 스스로를 “문화비평가”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우리 앞세대는 문학을 중심으로 문화를 분석했지만 우리의 주된 비평의 대상은 산업적인 대중문화”임을, “문자가 아니라 이미지와 소리의 테크놀로지를, 작가가 아니라 문화산업의 구조를, 작품이 아니라 상품의 미학을 분석하고 비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⁶²⁾ 표지에 서태지의 사진이 실려 있으며, 이후로도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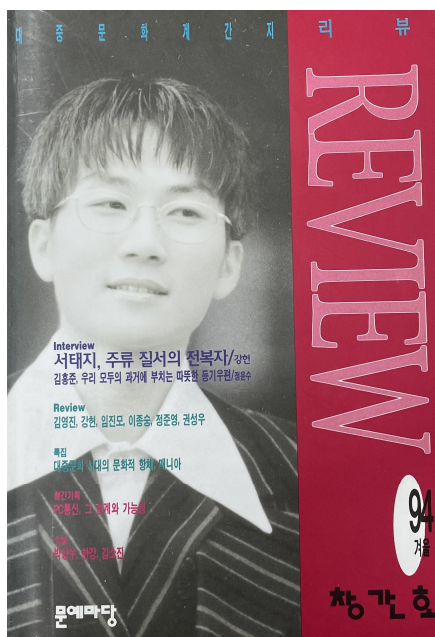
59) 하상일, 「90년대 문화담론을 둘러싼 세 가지 질문—문화잡지에 대한 비판적 점검」, 《오늘의 문예비평》, 1999년 봄호, 315-317면.

60) 이동연, 「의미화실천, 주체화양식, 실험공학의 장: 한국 문화연구의 생산적 논쟁을 위해」, 《문화과학》 13호, 1997.12., 50면.

61) 《이매진》은 ‘상상’이라는 이름을 곧바로 떠올리게 하는데, 화려한 지면과 과도한 상업성으로 당대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문화적 시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시 읽어 볼 가치가 있다. 특히 창간호에는 ‘듀나’의 작품이 공식적으로 처음 실렸는데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무척 흥미롭다. 계간 《문학동네》의 창간사에서 자주 인용되는 “어떤 새로운 문학적 이념이나 논리를 표방하지는 않으려고 한다”는 서술도 90년대 중반 《상상》을 필두로 한 지향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 것이다.

62) 주인석, 「왜 REVIEW 인가?」, 《리뷰》, 1994년 겨울호(창간호), 10면.

뷰》가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표지로 장식해왔다는 점은 90년대 중반에 다다른 시기에 문학장의 구성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특히 실제로 ‘문화’를 중심에 두면서도 매체의 구성원들이 문학에 기반하고 있었던 잡지와는 달리 그 해당 문화의 비평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리뷰》 1994년 겨울호, 창간호 표지〉

이후 주인석은 패션지에 가까운 대중문화잡지 《이매진》으로 옮겨가고, 서영채는 《문학동네》 창간과 운영에 관여하게 되는데 《리뷰》는 그 중간 즈음에 위치하다가 1998년 겨울호, 통권 17호로 종간한다. 《리뷰》가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던 데에는 이 ‘중간적 위치’가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카데미한 담론과도 거리를 두고 대중의 흥미와 취향에도 휩쓸리지 않으려 하면서 문화적 현상들을 ‘리뷰’하려던 시도는 결

국 그 중간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를테면 《리뷰》의 표지를 장식했던 인물은 서태지, 박재동, 김창완, 백남준, 신해철, 윤대녕, 정태춘, 박종환, 장정일, 윤도현, 한석규, 조용필, 이두호, 김민기, 심재명, 강준만 등이었는데 이러한 기획은 개별 편집위원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었다. 즉 하나의 매체가 지속적인 공동의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개별 장르의 비평적 시선들이 번갈아가며 전시되는 형태였고 이는 더욱 ‘매니악’한 지면들의 등장으로 그 전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장르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확장의 시도가 결국 ‘문학’, ‘영화’, ‘음악’, ‘공연’, ‘스포츠’, ‘만화’ 등으로 지면이 구성됨으로써 역설적으로 장르적 단절과 폐쇄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고 말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당대 문화의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뷰》는 90년대 문화적 풍경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화 무크지 《이다》의 창간도 주목할 만하다. 문학과지성사에서 발간된 이 잡지는 김동식, 김태동, 김태환, 성기완, 윤병무, 주일우, 최성실 등이 편집동인으로 참여했으며⁶³⁾ 1996년 7월 첫 호를 내고 1997년 4월에 2호, 1998년 9월 3호, 2000년 8월에 4호로 중간했다. 무크지 형태의 비평 잡지를 발간하거나 《문학과사회》의 동인과 별개로 젊은 세대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문학과지성 그룹의 전통이기도 한데, 《이다》는 그러한 지향과 더불어 90년대 문화적 흐름에 대응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이다』는 문화를 다루는 모든 글들이 진정한 의미의 비평적 태도를 견지할 것은 원칙으로 한다. 『이다』는 문화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독자보다는,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하는 독자를 겨냥한다. 『이다』는 문화 현상을 보고하는 리포터가 되기보다는, 문화에 대한 비평적 개입을 통해서 스스로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것은 비판적이고 꼼꼼한

63) 2호부터는 김제인도 편집 동인으로 참여한다.

책읽기로서의 문학 비평이다. 그 모델은 문화 비평의 전영역에 확장되어야 한다. 대중 문화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은 타당하다.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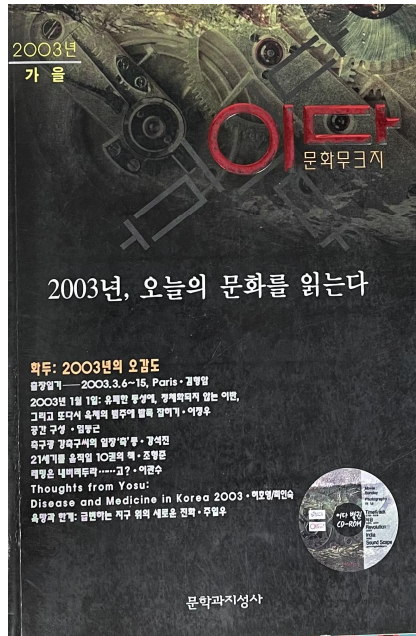
창간사에서 언급된 모델로서의 문학 비평은 《이다》의 지향과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창간호에서 이들은 멀티미디어, 디지털, 전자 시대 등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것을 ‘문학 비평’의 형태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시, 소설, 비평 등의 구성은 기존 문예지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다》가 ‘문화 무크지’로서의 변별점을 갖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문학과사회》에서 다를 수 없거나 다루기 힘든 부분들을 《이다》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다》의 편집진들도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다. “이질적인 담론이 모이는 공간, 탈경계를 추구하는 소통적 개방성”이 《이다》의 지향이라고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책이 딱딱하고 어렵다는 지적”은 것과 “통일적인 지향성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2호에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⁶⁵⁾ 특히 90년대에 왜 무크지가 필요하냐는 의견에 대해 “90년대의 무크는 버티는 것, 죽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는 것”⁶⁶⁾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곧 《이다》가 당대의 여러 문화 잡지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 즉 ‘문화’를 통해 탈경계, 해체 등을 앞세우다 보니 지속적인 동력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점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다》가 길지 않은 무크지로서 시도했던 것 중 하나가 ‘가상’이라는 설정이다. 과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과거의 인물이나 가상의 생명체와 ‘대담’을 나누는 형태로 실리기도 하였는데, 《이다》 3호에서는 아예 〈2003년에 오감도〉를 표제로 삼고 표지에도 2003년 가을호로 표기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64) 『이다』 편집 동인, 「첫 호를 내면서」, 《이다》 창간호, 1996.7., 11면.

65) 『이다』 편집 동인, 「두번째 호를 내면서」, 《이다》 2호, 1997.4., 13면.

66) 위의 책, 같은 면.



〈《이이다》 3호(1998년 9월) 표지〉

실제 잡지의 판권란을 제외하면 《이이다》 3호는 2003년 가을에 발간된 것으로 모두 구성되어 있다. 5년 뒤의 변화를 상상하여 지면을 꾸린 시도인데, 이것을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예견으로 본다면 설득력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세기말에 다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2000년대를 예상해 보는 하나의 시도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들이 서술해둔 2003년의 모습에서 90년대 후반 당대 구성원의 문화적 감수성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1980년대의 문학장이 엄혹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과학적 비평의 시대였다면 1990년대는 문화예술 비평의 시대가 분명한 것 같다. 컴퓨터와 PC통신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문학적 가능성을 가능했던 것과 문학을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위치시키고 다양한 문화 현상 속에서 그 교호를 도모했던 것은 90년대 문학 매체의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시도가 학생 운동이나 정치 투쟁,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문화적 실천, 혼란스러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 탐구 등으로 다채롭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90년대를 단절이 아니라 연속의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이러한 90년대 문학 매체의 시도들은 분명한 한계도 갖는다.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를 통한 다양한 가능성이 결국 문학의 생산이나 유통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과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끝내 문학 중심주의,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문학이 가지고 있던 경직성이나 엄숙주의 등을 타파하는 데 이러한 매체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이견이 없을 듯 하다.

본고는 90년대의 다양한 잡지들을 토대로 90년대 문학사적 풍경을 재구성하고 그 매체적 흐름을 고찰하려고 했다. 1994년의 《문학동네》 창간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에서 벗어나 다채롭고 역동적인 맥락들을 살피려고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루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1990년대에 문학 작품을 신고 문학(화) 담론을 전개했던 잡지는 적어도 5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⁶⁷⁾ 90년대 문학을 아카이브하고 이를 토대로 당대의 문학사적 흔적을 찾으려면 더욱 많은 자료들이 소개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1989년에 창간된 《작가세계》가 어떻게 '작가 중심'의 기획들을 만들어갔는지, 각 매체들이 어떻게 문학상이라는 상징 권력을 획득해갔는지⁶⁸⁾ 등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키

67) 현암사에서 1988년부터 펴낸 《오늘의 소설》, 《오늘의 시》 시리즈에 적시되어 있는 목록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문예연감』의 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다.

노》와 《씨네21》 등 당대 문화적 영향력이 컸던 영화 잡지나 현재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페이퍼》와 같은 잡지도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 《녹색평론》과 《과학사상》처럼 중요한 지향점을 가진 매체들, 《또 하나의 문화》와 《여성과 사회》 사이에서 탄생한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1998년 2월에 창간한 월간 동성애 전문잡지 《버디》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은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스키조》 등의 초창기 웹진이나 《새로운》, 《문화전선》처럼 단발성으로 혹은 결국 발간되지 못한 여러 시도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고찰이 필요하다.

68) 《창작과비평》은 1994년 '신인평론상'을 신설하는데, 기존의 투고 형태에서 공모전 '시상'의 형태로 가장 먼저 시도된 것이 시나 소설이 아니라 '비평'이라는 점은 당대 비평적 지형을 들여다보기 위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창작과비평사와 문학과지성사는 1994년에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새로 설립된 문학동네 역시 같은 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매체에 관여하는 구성원들의 '지분'을 통해 출판사가 경영된다는 점은 2000년 이후 문학 매체의 지형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대학신문》, 《리뷰》, 《문예연감》, 《문학과사회》, 《문학동네》, 《문화과학》, 《버전업》, 《비평의 시대》, 《상상》, 《오늘예감》, 《오늘의 소설》, 《오늘의 시》, 《이다》, 《이론》, 《창작과비평》

2. 단행본

김영찬 외, 『1990년대의 증상들』,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7

김정남 외, 『1990년대 문화 키워드 20』, 문화다북스, 2017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작가와 비평 편,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 여름언덕, 2005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황중연 외,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마이클 돕스, 『1991—공산주의 붕괴와 소련 해체의 결정적 순간들』, 허승철 역, 모던 아카이브, 2020

미셸 마페졸리, 『부족의 시대』, 박정호·신지은 역, 문학동네, 2017

사이먼 레이놀즈, 『레트로 마니아』, 최성민 역, 워크룸프레스, 2017

스튜어트 홀, 『문화연구 1983—이론의 역사에 관한 8개의 강의』, 김용규 역, 현실문화연구, 2021

아를레트 파르주, 『아카이브 취향』, 김정아 역, 문학과지성사, 2020

3. 논문

강내희, 「유물론적 문화론 정초를 위하여」, 《문화과학》, 창간호, 1992.6.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1990년대 문학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들」, 《한국학연구》 56집, 2020.2

고은, 「문학이 이끄는 사회와 역사—과학성, 당파성 등의 문제로서의 제언」, 《창작과 비평》, 1990년 봄호

김경년·최리외, 「책이라는 예술작품」, 『딕테』: 차학경 『딕테』 김경년 번역가 서면 인터뷰, 《자음과모음》, 2021년 가을호

김동해, 「학생운동 내의 문학예술투쟁에 대한 제언」, 《녹두꽃》 1호, 1988

김성기, 「상황의 도전과 문화의 응전—최근 잡지의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문학과

- 사회》, 1993년 가을호
- 김영희, 「90년대 문학의 밤과 프롤레타리아의 시—일상/투쟁의 서사와 훼손된 육체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7권 3호, 2019.12
- 김윤식, 「체험으로서의 한국 근대문학사론—근대문학의 기원과 문학사의 원환 구조」, 《문학동네》, 1998년 겨울호
- 김주연, 「상업 문화와 혁신 문화의 거리—90년대의 문학과 사회를 전망하며」, 《문학과사회》, 1990년 봄호
- 김창남, 「민주화 대세 거스르는 대중문화」, 《選批》, 1988년 봄호(창간호)
- 김탁환·손동수·한정수, 「특별좌담: 대중문화잡지, 무엇을 할 것인가?」, 《상상》, 1996년 가을호
- 나준성, 「이성욱 비평의 문화(운동)론과 ‘현실’이라는 조건의 의미」, 《춘원연구학보》 제20호, 2021.4.
- 서영채, 「1990년대, 시민의 문학: 『문학동네』 100호에 즈음하여」, 《문학동네》, 2019년 가을호
- 안용희, 「X세대의 상상력과 ‘리얼리티’의 갱신」, 《한국문학연구》 61집, 2019.12.
- 여국현, 「사이버문학’과 사이버시대의 텍스트 짜기—『사이버문학의 도전』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11호, 1997.4
- 윤지관, 「전환기의 민족·민중문학과 소설」, 《실천문학》, 1990년 봄호
- 이동연, 「의미화실천, 주제화양식, 실험공학의 장: 한국 문화연구의 생산적 논쟁을 위해」, 《문화과학》 13호, 1997.12.
- 이성욱, 「90년대 문화운동의 방향 모색」, 《문화과학》 창간호, 1992.6
- 이용욱, 「로그 아웃: 정보화 사회, 국어국문학의 방향」, 《버전업》, 1999년 여름호
_____,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버전업》, 1996년 가을호(창간호)
- 이윤중, 「『문화/과학』과 1990년대 한국의 문화론」, 《구보학보》 19집, 2018.12.
- 이혜영, 「90년대와 80년대: 하나의 정신사적 고찰」, 《문화과학》, 1999년 겨울호
- 장성규, 「당신들의 90년대」, 《실천문학》, 2015년 여름호
_____, 「한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밤’: 1980-90년대 노동자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3집, 2021
- 정윤수, 「1990년대 피씨통신과 취향공동체의 형성」, 《사회와 역사》 제127집, 2020.9
- 조연정, 「문학주의’의 자기동일성—1990년대 『문학동네』의 비평 담론」, 《상허학보》 53집, 2018.6
_____,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문학」, 《한국문화》 81집, 2018.3
- 주은우,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건」, 《사회와 역사》 88호, 한국사회사학회, 2010.12

- 천정환,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2)—『노동자의 이름으로』에 나타난 열사, 진정성 그리고 1990년대」, 《반교어문연구》 제56집, 2020.12
- _____,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 주체와 노동과정에 대한 서사론」, 《반교어문연구》 제46집, 2017.8
- 최가은, 「'90년대'와 '여성문학특집': 『문학동네』 1995년 여성문학특집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5권, 2021.4
- 하상일, 「90년대 문화담론을 둘러싼 세 가지 질문—문화잡지에 대한 비판적 점검」, 《오늘의 문예비평》, 1999년 봄호
- 홍윤기, 「탈계급적인 선택과 결단의 문학적 표출—해방문학으로서의 대학문학」, 《문학과학회》, 1988년 여름호

<Abstract>

The Era of Criticism and its myriad traces
-A Mapping on Literary Media in the 1990s

Roh, Taehoon

Looking back on the 1990s as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the decade between the June 1987 revolution and the 1997 IMF crisis could be defined into the '90s. In other words, the rapid change in social reality after the '87 years system' continued to 1997, however, the sociological analysis cannot be applied to the history of literature. Nevertheless, if we look at the media of literature, we can use the boom in publications that began with liberalization of publications in 1987 and the decrease of the IMF in 1997 as the appropriate base. Accordingly, the decade of '87-97' can be a valid criterion for reviewing literary media in the 1990s.

Existing research on literary media in the 90s usually focuses on the creation of *Munhakdongne*[Literature Village], but these studies are usually reconstructed as a result of literary and publishing power disputes around the 2000s. Also, the literary development of the 1990s, which is visualized as major publishers, magazines, and literary writers, is a way of returning various aspects of the 1990s that have been shown by research achievements to commerciality and literary power. W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first is the retrospection and archiving of how the media as a form of literature has changed with social and cultural context, and the various literary landscapes of the 90s, which have been omitted by traditional literary history.

Based on the various magazines of the 90s, this paper tried to

reconstruct the historical landscape of the 90s and examine its media flow. If the literary field in the 1980s was an era of political, social, and scientific criticism to overcome the harsh reality, the 1990s was an era of cultural and artistic criticism. Resistance to student movements and political struggles has shown its potential through new media such as computers and PC communication, and has placed literature as a genre of culture and art amid various cultural trends and sought interchange. Furthermore, it was also intended to note that it consisted of cultural practices that resisted capitalism and theoretical exploration to overcome chaotic times.

At the same time, these 90s literary attempts have limits. Various possibilities through new technologies or devices did not eventually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the 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literature, and efforts to expand cultural base were difficult to overcome literary centrism and elitism. Nevertheless, it is clear that these media played a major role in breaking down the rigidity and solemnity of literature.

Key words: the 1990s, Literary Media, Literary Magazine, *Onelyegam* [Today's feeling], *Version Up*, *MunhwaGwahak*[Cultural science], *Theory*, *Sangsang*[Imagination], *Review*, *Ida*

투 고 일: 2021년 9월 1일

심 사 일: 2021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9월 23일